

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	<h1>보도설명자료</h1>	2017. 5. 15(월)	
		배 포	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 양홍석 (Tel. 02-3145-6221)
* 엠바고 : 즉시 사용			

「이낙연 부인 그림이 얼마나 멋지길래」 보도 관련

(TV조선, '17.5.15)

□ 보도내용

-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이 '13년 8월에 연 첫 개인전시회에서 전남지역 공기업(전남개발공사)이 그림 2점을 900만원에 구입했는데,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후보자를 배려해 부인의 그림을 비싸게 산 게 아니냐는 의혹
- 당시 그림 구입을 주도했던 공사 핵심관계자는 초청장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, 이 후보자 부인의 작품인줄 알고 구입을 결정했다고 말함

□ 설명내용

- 전남개발공사는 '13년 총리후보자의 배우자가 개최한 전시회에서 배우자 그림 2점(각 400만원, 500만원)을 매입한 사실이 있음
 - 전시회 특성상 전시회 기간중에는 작품 구입자가 전남개발공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
- 전남개발공사가 구입했다는 사실은 통장확인을 통해 알았으나, 당시 서울에 거주하며 道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배우자는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의 산하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

- 판매 시점은 후보자가 제6대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'14년 7월 전남도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으로, 전시회 당시 후보자가 전남개발공사에 작품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
- 전남개발공사는 영산재, 땅끝호텔 등 공사 소유시설과 '14년 2월에 개장한 경도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의 장식을 위해 '13년 8월 부터 '14년 2월 사이에 6명의 작가로부터 총 14점의 그림을 구입하였음
 - 14점 그림 구매금액은 총 2억 5,800만원이며, 최고가 그림은 5,400만원이었고, 그 가운데 배우자 그림은 14점 중 가장 싼 400만원 1점과 500만원 1점이었음
- 후보자는 전남개발공사에 배우자의 전시회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들 결혼식 청첩장, 정치후원금 안내장 등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만한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음